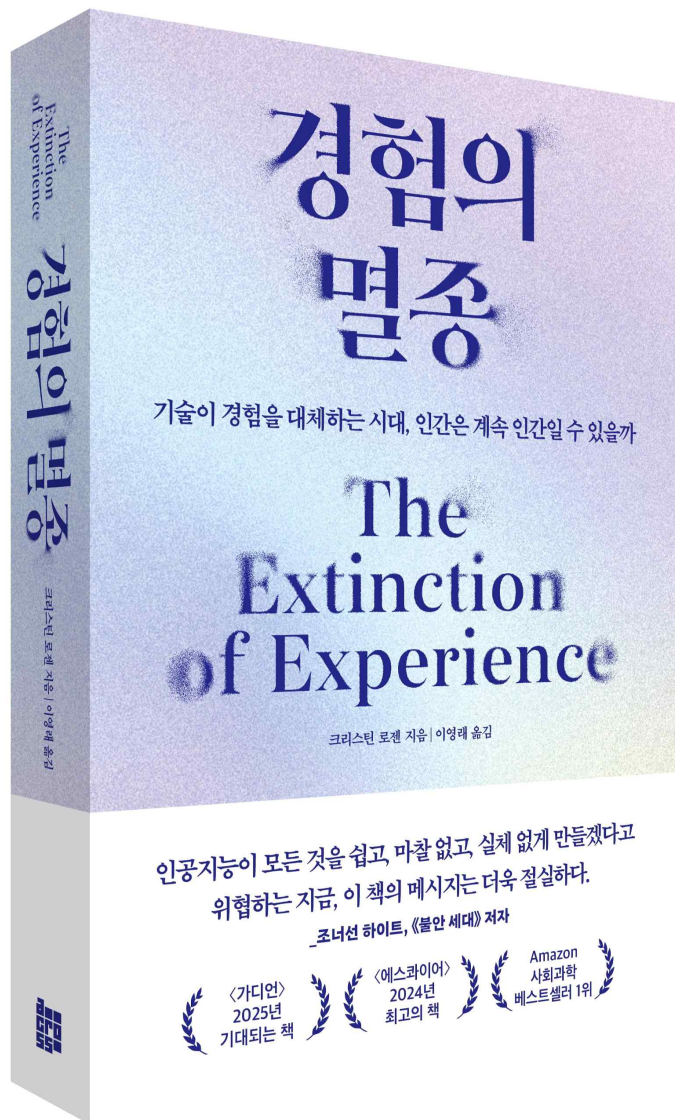




경험의 멸종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크리스틴 로젠 지음, 이영래 옮김

2025년 5월 20일 출간 | 판형 147*215 | 364쪽 | 19,800원

분야 인문>교양인문, 사회과학>사회문제 일반 | ISBN 979-11-6774-206-3 03300

책 소개

- ★ 《불안 세대》 조너선 하이트 추천
- ★ 〈가디언〉, 〈에스콰이어〉 주목 도서
- ★ 아마존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1위

“멸종 위기에 놓인 ‘인간다운 삶’을 구출하라”

대면 소통에서 길찾기의 감각까지,

경험의 순간을 되찾기 위한 광범위한 지적 성찰이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챗GPT에게 문서 요약을 맡기고, 비대면 미팅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소셜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일상을 업로드한다.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는 기술로 매개된 경험이 인간의 직접 경험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된다고 여겼던 핵심적인 직접 경험들, 예컨대 대면 소통이나 손으로 쓰고 그리는 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순간과 공공성을 감각하는 일 등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 비평가이자 역사학자인 크리스틴 로젠은 《경험의 멸종》에서 경험이 소멸하는 21세기적 현상을 탐구하고 그 소멸이 갖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대중문화, 과학, 정치, 법률 등 수많은 사례를 탐사하는 로젠의 작업은 인간의 조건이 되었던 경험들이 사라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흐름을 전복할 지적 근거를 제공한다. 출간 이후 아마존 사회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한 이 책은 〈가디언〉, 〈에스콰이어〉를 비롯한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왜 10대들은 투표권 대신 소셜 미디어를 선택했을까

: 기술이 대신하는 경험, 사라져가는 현실

일상 곳곳에서 직접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 대면 소통은 불편한 일이고, 지도 앱의 도움 없이 길을 찾는 일은 미련해 보인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다. 이제 단순히 경험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기술로 매개된 경험은 직접 경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 1년 동안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10대 사용자의 64퍼센트가 투표권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전 세계 청소년의 53퍼센트가 자신이 선호하는 기술을 잃느니 후각을 잃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저자는 기술로 매개된 경험이 직접 경험을 추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다.

직접 경험이 매개 경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경험은 ‘겪는’ 일에서 ‘보는’ 일로 옮겨가고 있다. 여행지의 모습보다 여행에 떠난 자신의 모습을 중계하고, 동영상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촬영한 리액션 영상을 게시한다. 이는 직접 경험이 박탈된 사회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경험을 체험해 보려는 시도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경험으로부터 현실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가상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모방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매끄러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인가

: 기술과 자본이 만든 ‘안전한 유토피아’

기술로 매개된 경험이 직접 경험을 압도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매끄러움’과 ‘최적화’를 선호하는 기술 사용자들의 선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을 설계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추구다.

현실 세계는 혼란과 마찰로 가득 차 있다. 실제 경험은 언제나 우연적이고 계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된 기술 경험은 다르다. 기술 세계는 사용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최소화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다. 기술 사용자들은 이 매끄러운 세계에서 고통과 실패가 삭제된 경험으로 실제 경험을 대체한다. 체계화되지 않은 현실의 경험보다 균질화된 매개 경험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에 더해, 저자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를 망각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목표란 이윤 추구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 사용자들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약속하고, 이로써 현실 경험을 대체해 나간다. “자동적이고 수월하며 매끄러운” 곳을 약속한다는 이 슬로건은 애플의 광고에서 들어 있는 말이다. 저자는 이 기술 세계가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인지를 묻는다.

경험이 멸종된 시대, 인간다움은 가능한가

: 기기가 대신 요약해준 글, 인공지능이 정리한 문서, 지시어로 만들어낸 그림...

기술이 경험을 대신하는 세상이 위협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불안 세대》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경험의 멸종》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 없고, 실제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매끄럽고 자동화된 매개 경험에 비해서 실제 현실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현실을 옹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혼란과 실패가 인간적인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편함과 동시에 인간의 조건이 되는 그 현실의 경험들까지 함께 제거해나가고 있다. 책을 읽지 않고 기기에게 요약해달라고 하는 일은 독서의 종말을, 문서 작성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일은 생각의 종말을, 지시어만을 입력해 그림을 얻는 일은 창작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모든 경험을 기술에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데이터화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공동체의 회복과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라는 집합 명사를 사용한다. 이 책에서 ‘우리’란 실체를 가진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술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진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조차도 타인의 기술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받는 만큼,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적 필요 때문에 공적 공간이 낱알이 분할됨에 따라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술로 매개된 가상의 커뮤니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물리적 실체인 공공 영역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둔감해지며,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더욱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개 경험은 그 폐해를 지적하는 능력조차 앗아간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멸종의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에 저항해야 한다. “경험의 멸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저자의 말이다.

저·역자 소개

크리스틴 로젠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에모리대학교에서 미국 지성사를 전공해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 기술과 문화의 상호작용 등에 관해 연구해왔다. 버지니아대학교 고등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자 과학저널 〈뉴 아틀란티스〉의 자문을 맡고 있는 선임 편집자다. 〈코멘터리〉의 칼럼니스트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기도 하다. 기술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 생명 윤리, 역사를 주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윤진이 이영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살면서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모두 거짓말을 한다》,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 외 다수가 있다.

책 속에서

디지털화, 매개, 초연결, 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질까? 인간의 조건이 아닌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인간은 몸을 갖고 있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며, 매개된 경험과 매개되지 않은 경험 사이를 자주 오가고, 성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며, 결국 유한하다. 반면 사용자 경험은 실체가 없는 디지털이고, 추적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항상 매개자가 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무한을 약속한다(몇몇 신기술이 장담하듯이 죽음 이후에도 남은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 챗봇을 설계함으로써 비통해하는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 _16쪽

이제는 많은 아이가 자연, 놀이, 음악, 언어에 대한 첫 경험이 스크린 등 기술을 통해 매개되는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 그들의 장난감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반응을 기록한다. 베이비 모니터는 그들을 지켜본다. 기기는 그들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한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라인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든다. 그들은 디지털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공유를 거의 의무화한 곳에서, 경쟁과 지속적인 표현이 일반적이고 대면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낮으며 익명의 괴롭힘이 쉬운 곳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곳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세계다. 과거는 더 이상 멀고 단절된 무언가가 아니다. 페이스북이 “1년 전 오늘” 기능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기술 회사들이 자주 상기시켜주듯이 그곳은 가능성의 세계이고, 애플 광고 슬로건이 약속하듯이 “자동적이고 수월하며 매끄러운” 곳이다.

이곳이 우리가 사는 세계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인가? _47쪽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말했다. “관심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물리적으로 구현된 존재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즉 같은 공기를 마시고, 말로 하지 않은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몸짓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려면 그의 물리적 존재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_87쪽

몽테뉴는 수세기 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곳으로, 미래로 서둘러 움직인다.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면 시간, 인내, 지루함, 백일몽, 발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_169쪽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그의 책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쾌락주의에 도전했다. 기계에 연결되었다는 기억 없이 끊임없는 쾌락을 제공하는 기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기계에 연결되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오”라고 답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노직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경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기계에 연결하는 것을 “일종의 자살”에 비유했다. _265쪽

차례

프롤로그 경험이 사라져가는 시대

1장 직접 경험의 내리막

육체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착각 | 날씨 앱 뒤에는 기상학자가 없다 | 마케팅이 된 경험 | “너 자신을 보여라”

2장 대면 상호작용의 필요성

얼굴이 가지는 힘 | 상호작용 능력의 소멸 | 투명 인간들의 사회 | 인간을 대체한 기계 | 친구를 만나지 않는 10대들 | 직관을 방해하는 기술 | 우리, 물리적 존재

3장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

손 글씨의 나비 효과 | 물성의 힘 | 그림 그리기의 쇠퇴 | 만지고 느끼고 소비하고 | 어린이들의 학습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 육체성의 소멸 앞에서

4장 기다림과 지루함의 기능

디즈니월드에서 배운 줄 서기의 논리 | 성급하게 화가 난 사람들 | 지루함을 없앤 대가 | 인내의 열매 | 회전 극장에서

5장 감정 길들이기

인간이라는 감정적 존재 | 우리 내부의, 숨겨진, 우리 자신 | 여섯 번째 감각 | 감정 아웃소싱의 결과

6장 기술로 매개된 쾌락

데이터로 축소된 쾌락 | 기록되기 위한 여행과 픽셀화된 예술 | 포르노로 대체된 섹스 | 미식 없는 식사, 현장 없는 경기 | 다시 도래한 쾌락주의 | 사진 안에 박제된 경험 | 대체 불가능한 쾌락

7장 소멸하는 장소, 개인화된 공간

장소가 뿌리뽑힌 사회 | 공간의 규칙 |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 우리는 같이 있지 않다 |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딘가

에필로그 이 혼란에 저항하라

감사의 말

주

추천사

"기술은 우리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크리스틴 로젠은 내가 찾아 헤매던 말을 찾아냈다. 《경험의 멸종》은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이 없고, 실체가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그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_ 조너선 하이트, 《불안 세대》 저자

"기술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잘 고민하지 않는 삶의 영역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크리스틴 로젠은 칭찬받을 만하다. _ <월스트리트 저널>

"흥미롭고 흡입을 데 없이 연구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지능적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인간의 의지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한다. 시의적절하고 정보에 입각해 있다." _ <커커스 리뷰>

"엄격하게 연구하고 우아하게 풀어낸 《경험의 멸종》은 '잔디를 만져라(Touch Grass)'가 단순한 인터넷 유행어가 아니라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_ <에스콰이어>